

하림, 농가와 상생협력 강화 주력

사육표준계약서 구체화·조류인플루엔자·전염병 발병·전과 방지 정부의 권고안 준수 등

㈜하림이 농가와의 상생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9일 하림에 따르면 도계·가공설비가 들어서고 있는 망성면 본사 리모델링 현장에서 이날 계약농가 대표인 농가협의회와 사업설명회를 갖고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하림은 지난 2006년부터 계열농가들의 자율조직인 농가협의회를 구성해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당면 현안과 건의사항 등을 협의해 해결하고 있다.

이날 하림과 농가협의회는 사육표준 계약서를 구체화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및 전염병 발병·전과 방지를 위한 정부의 권고안의 준수 등을 약속했다. 하림이 리모델링을 통해 갖추고 있

는 도계·가공 설비는 시간당 1만 3500마리, 1일 110만~120만마리의 도계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림은 이 자리에서 계약농가의 자녀 96명에게 79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하림은 지난 2013년부터 계약농가 자녀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매년 하반기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광택 농가협의회 회장은 "이번 표준계약서 적용으로 하림과 농가들의 상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농가 소득증대 프로젝트에 이어 제2의 상생 프로젝트로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왕림 기자



㈜하림이 농가와의 상생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사진=하림 제공>



‘해외명품 럭셔리 페어’

롯데백화점 전주점, 내일부터 15일까지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조환섭)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6층 이벤트 행사장에서 봄 정기 SALE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명품 럭셔리 페어’를 진행한다

이날 해외명품 럭셔리 페어는 수입명품업체 상품으로 정기세일을 맞아 해외 명품 30여 브랜드가 참여, 30억원 규모 행사로 의류 스크래치 상품 40~70%, 해외잡화 및 선글라스 10~40% 세일한다.

행사기간 중 300명 고객께 40/80/120/200/400만원 이상 구매 시

롯데상품권 1/2/3/5/10만원 증정한다. 또한, 당일 50만원 이상 롯데카드 구매 시 6개월 무이자(4.13~15까지) 등 풍성한 사은행사도 펼쳐진다.

롯데백화점 잡화 홍석환 파트리더는 "일년에 단 두번 행사인 만큼 고객 니즈에 맞는 브랜드를 선정, 차별화된 해외 패션 상품들을 만나 볼 수 있다"며 "평상시 눈여겨 둔 다양한 해외 명품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호 기자

농어촌공 최규성 사장, 합동업무보고·현장점검

한국농어촌공사 최규성 사장은 9일 새만금33센터를 찾아 새만금사업단(단장 심현섭)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단장 임우순) 금강사업단(단장 정낙교) 등 3개 사업단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최규성 사장은 '혁신의 방향을 국민으로 설정'하고 추진중인 사업도 국민의 시각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공사의 지향점으로 '국민을 위한 농업',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농어

촌',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제시했다. 아울러 간담회를 통해 직원들과 소통의 자리를 갖고 지역의 애로사항 및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미래농업을 위한 첨단 농생명 용지로 조성중인 새만금 농생명용지 및 김제 광활5지구 사업현장을 찾아 주요추진현황과 비산먼지방지대책 등을 보고 받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조달청, 전북지역 여성기업 CEO 초청 간담회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전형구)은 9일 청사 회의실에서 한국 여성 경제인 협회 전북지회(회장 박영자) 여성기업 CEO 20여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기업 지원제도를 설명, 예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 도내 여성 기업이 조달시장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여성 기업들은 입찰 및 계약 추진 시 발생하는 여러 애로사항등을

건의했다. 특히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및 계약 관리에 대한 어려움과 입찰 방식 개선에 대해 검토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에 전형구 청장은 "이날 논의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조달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내 여성 기업들도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통해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해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수호 기자

한전 군산지사, 새만금 국제 마라톤 대회 봉사활동

한전 군산지사(지사장 문용두)는 지난 8일 군산 월명종합경기장에서 펼쳐진 2018년 군산 새만금국제마라톤 대회 현장을 찾아 1만 여명의 선수들에게 생수를 나눠 주며 사회적 기업으로서 역할을 했다.

이날 50여명의 봉사단원 들은 현대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기(氣) 살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참여했

다. 또한, 군산 시민과 한전 직원들의 뜨거운 에너지가 하나로 합쳐져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염원했다.

문용두 지사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본연의 업무와 더불어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자"고 강조했다.

/최수호 기자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 배당 착오 사태 책임져야”

금강원, “직원 아닌 회사 차원 문제”

금융감독원은 9일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를 면담하고 최근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가 일부 직원들의 문제가 아닌 회사 차원의 문제라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순연 금강원 자본시장 담당 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 대표에 대해 “증권회사로서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철저한 사고 수습을 촉구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가 일부 직원의 문제라기보다는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이다.

주식배당 입력 오류 발생 시 이를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으며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고 정정하는 절차 또는 감시기능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담당직원이 주식배당을 잘못 입력하고 최종 결제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음에도 6일 오전까지도 오류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주식 착오 입고가 실행되는 내부 통제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또 자체적으로 입력 오류를 인지(오전 9시31분)하고도 실제 잘못된 주문을 차단(오전 10시8분)하는데 까지 37분이 소요되는 등 위기대응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삼성증권 일부 직원은 회사의 경고메시지 및 매도 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착오 입고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매도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우리스주 배당 입력시스템, 주식거래 시스템 등 증권회사 전반의 문제도 짚었다.

우리스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은

일반주주와 달리 위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해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착오 입력에 의해 입고될 수 있는 시스템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증권의 경우 발행회사로서의 배당업무와 투자중개업자로서의 배당업무가 동일한 시스템을 통해 이뤄져 시스템상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주식거래시스템상 한계도 문제 삼았다. 발행주식수(8900만주)를 초과하는 수량(28억1000만주)의 주식물량이 입고돼도 시스템상 오류가 확인되지 않고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진 문제도 짚었다.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발행되고 매매 체결까지 이뤄지는 등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노출됐다고 강조했다.

삼성증권 직원의 주식 매도에 따라 한때 삼성증권의 주가가 약 12% 급락해 동반 매도한 일반투자자들의 재산상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원은 삼성증권에 투자자 피해 보상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전담반을 구성·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금강원은 삼성증권 매도주식 결제가 이뤄지는 10일까지 삼성증권에 직원을 파견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에 들어간 다.

특히 투자자 피해 구제방안의 신속한 마련 및 결제불이행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최수호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